

지난 한 해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새해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 경험해 보지 않은 팬데믹 상황으로 누구나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와 선교지를 기억해주시고 뜨거운 기도와 사랑의 후원으로 동역해주신 모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고 반드시 주님의 마음에 기억되리라 확신합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온 교회와 동역자님들 가정 위에 충만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선교편지를 그동안 보내지 않은 선교사 마음

저희 아내의 코로나 의심 진단 상황으로 인해 급하게 지난 3월 21일 새벽에 한국에 도착해서 코로나 진단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5월 24일과 6월에도 다시 비행기 표를 구해서 입국하려고 했으나 현재까지 필리핀 정부에서 외국인 비자를 받아주지 않아서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오래 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고, 계획된 장기체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쳐 문제, 생활과 현지 교회들 후원과 구제 등 어려운 점들이 많았지만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 잘 지내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18년 동안 안식년을 못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 머물기가 처음이라 쉽이 되고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선교지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마음은 더욱 편치 않았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한국에 머물고는 있지만, 선교지에 머물고 있지 않으면서 선교지 이야기를 보낸다는 것이 저희 교인들, 여러분과 하나님께 죄송하고 저희 마음이 편치 않아서 5월까지 선교편지를 보내드리고 그다음부터는 의도적으로 선교편지를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선교편지를 보내드리지 않은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실정도 너무나 어려운 시기라 전화 한

통도 조심스럽고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저희 마음은 늘 만나 뵙고 싶었지만, 개인적으로 소식을 전하지 못한 것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국 체류 기간 사역



저희는 비록 한국에 머물러 있었지만 매일 저희 현지 교회 리더들과 메신저(MESSENGER)와 줌(ZOOM)을 통해 긴밀하게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팬데믹에 대처할 수 있는 각 교회 사역과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리더훈련을 쉬지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역과 성도들 관리와 예배 등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열방교회는 평상시에 셀그룹과 가정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을 서로 케어하는 제자훈련을 해왔기에, 이렇게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도 모든 성도와 교회가 요동함 없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필리핀 경제의 악화와 락다운으로 인해 성도들을 돕고 구제해줘야 했는데, 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주께서 아시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통해 쌀, 부식, 소독 약품과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현지에 보내서 각 교회별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여 부족한 제가 도움을 주신 모든 교회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 D3전도중심제자훈련 세미나

저는 또한 한국에 머물면서 시간과 여건이 될 때마다 한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안창천 목사님(한국 D3전도중심제자훈련 대표)과 D3전도중심제자훈련 세미나를 진행함으로 각 교회마다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팬데믹으로 인해 3월까지 필리핀 입국이 안된다는 현지 대사관 정보를 듣고 세미나 일정을 1월 15일까지 목회와 신학에 세미나 일정 광고가 나갔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세미나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 아넬 목사와 미나 사모의 딸 출산

2년 전에 12월 14일 룸반의 아넬 목사와 깔람바 교회 미나 자매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으나 3개월도 되지 않아 유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38세라 늦은 나이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산하여 아이가 잘 크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지금까지 동역하고 있는 아넬 목사가 44세에 얻은 딸이라 더욱 귀하고 저희에게는 손녀



와 같습니다. 앞으로 이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본이 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목회자 가정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COVID 19에서도 부흥하는 쾄타크르즈 YOUTH



유진이라는 24살 쾄타크르즈 교회 청년 리더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복음을 암송하고 한 지역을 타겟으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지속적인 전도로 청년 5명을 전도했는데, 그들이 전도하고 새로 참석한 청소년들을 통해 다시 전도하여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새신자가 50명이 넘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역을 감당하다가 인원이 많아지면서 청년 리더들과 사역을 분담하여 매주 금요일 모임을 시작한지 2달이 넘었습니다. 이젠 주일예배도 함께 참석하고 있는데, 오전 10시에는 어른들, 오후 1시에는 Youth 예배를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모두가 전도가 안되고 예배가 안된다고 하는 시기에 저희 열방교회는 지금이 가장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기임을 강조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100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쉬운 20주년 추수감사절



올해가 저희 열방교회 창립 20주년이었습니니다. 그래서 20주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아주 의미 있고 성대하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COVID 19으로 인해 추수감사절 연합예배를 드릴수가 없어서 저와 모든 성도가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히 COVID 19가 종결되어 새해에는 더욱 아름다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팬데믹과 상관없는 침례식





필리핀 모든 지역이 락다운으로 몇 개월 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못했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었지만, 통제가 어느 정도 풀려서 침례식을 가졌습니다. 선교사가 없어도 리더들이 침례식을 준비하고 아넬 목사와 침례 받는 성도를 전도한 인도자가 함께 침례를 주었습니다. 모든 침례자의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제니마 자매가 무슬림 자매를 전도했으나 침례를 거부했는데 이번에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자렐 자매가 제자훈련으로 세운 제제가 여러 명을 전도하여 다시 제자를 만들고 침례를 줌으로 아름다운 제자훈련의 성경적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로우즈라는 청년은 직장이 끝나고 저녁마다 안 믿는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오픈 셀그룹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제자훈련을 해왔는데, 이들이 이번에 침례를 받고 제자들로 세워지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참된 제자훈련은 멘토와 리더가 없어도 제자가 스스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재생산을 이루고 침례를 주어 다시 제자를 세우도록 삶과 모범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희 모든 성도가 이렇게 초대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 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팬데믹 가운데 살아있는 가정교회

필리핀은 바랑가이 법이 아주 강합니다.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마을을 이루는 동(洞) 안에 있는 동사무소의 법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각 바랑가이 법에 따라 어디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디는 예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랑가이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거나 장소는 폐쇄가 되기 때문에 법을 잘 다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 지역에 있는 열방교회와 가정교회가 어디는 예배가 진행이 되고, 어느 곳은 전혀 예배로 모일 수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가정교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12곳 정도이고 특히 어린이나 20세 이하 모임은 전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에떼 가정교회’는 1주년을 맞이했고 새로운 오픈 셀 그룹들을 개척해서 도리어 부흥이 되었습니다. 로스자매 집에서 모이다가 장소가 좁아져 본인 집 마당에 지붕을 올리고 확장을 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로스 자매는 성경의 루디아와 같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자기 집을 오픈하여 캐나다에서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를 쪼개어 영혼들을 섬기고 구제하며 많은 제자들을 세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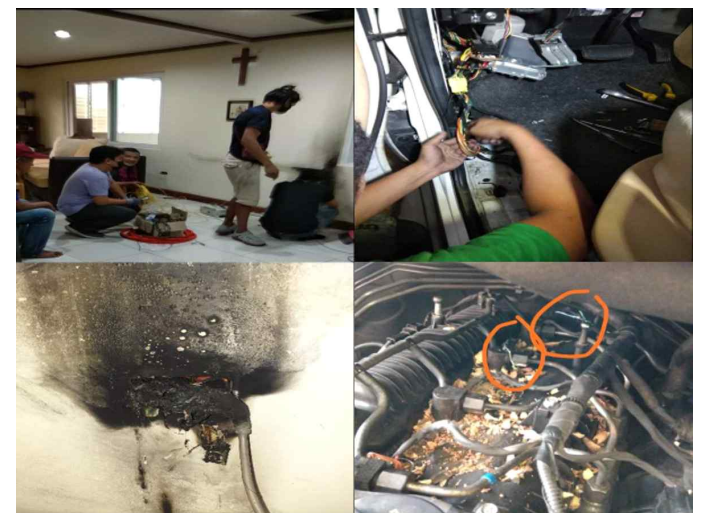
성도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귀한 자매입니다.

‘룽빵빵아고 가정교회’는 11월 말에 태풍으로 인해 동네가 물에 잠겼는데, 아직도 고립되어 있지만, 아이린 자매와 팀 사역자들이 매주 배를 타고 들어가서 가정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와 모임이 가능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정교회들이 속히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이 열리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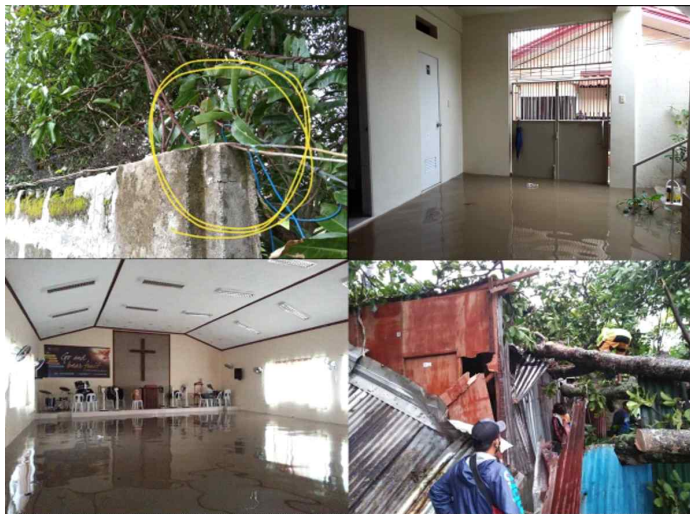
### 센타와 교회의 이모저모

저희가 센타에 없는 동안 거실 냉장고 코드를 뽑아 놓은 플러그에서 무슨 이유인지 코드와 플러그가 녹아 내리면서 벽 속에서 불이 났으나 큰 화재 없이 번지지 않고 꺼져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고쳤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오랫동안 세워놓았더니 배터리가 나가고 몇 번 쥐들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전선과 연결 코드를 잘라 먹어서 차를 고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게이알록 열방교회는 COVID 19으로 락다운 때문에 몇 개월간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전기세가 2달 동안 거의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교회 담장 옆에 있는

전기줄에서 점프를 따서 바랑가이 캡틴(동사무소 동장) 아버지가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전기관리 사무실에서 나와서 조사하고, 바랑가이(동사무소)에도 신고를 했으나 소용없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교회와 본인들도 그렇게 큰돈이 없었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저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웠는지!! 전기세만 누적되어 점점 불어났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고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보내서 전기세를 내서 해결은 되었지만! 한국 같으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이곳 사우스빌 바랑가이 캡틴 집안은 원래 청부살인을 하던 사람들이고 이곳이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라 혹시나 나중에 보복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었으면 어떻게라도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은 해봤겠지만, 성도들이 같은 동네에서 위험해질 수 있고 그런 환경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내서 해결을 했습니다. 영화에나 나올 이야기가 선교지에서는 아직도 많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태풍이** 저희 지역을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 집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엄청난 비로 인해 밤방 열방교회 예배당에 50센티 정도까지 물이 들어와서 3일이나 물이 빠지지 않아서 예배당이 완전히 물에 잠겨서 엉망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싘타크르즈 암브로쇼 성도 집에** 강한 태풍으로 인해 큰 나무가 쓰러져서 완전히 집이 무너져 집을 거진 새로 지어야만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너무나 가난한 가정이고 코로나로 인해 시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사는 모든 비용을 보내서 교회 남전도 회원들이 헌신적으로 집을 다시 복구해줬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선교지에 있다가 보면 어쩔수 없이 손해 보고 헌신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사역과 삶은 지금까지 계산을 하거나 따지지 않고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우시고 도움의 손길을 통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 낙후된 장비로 인한 실시간 온라인 예배의 어려움

필리핀 모든 열방 교회 음향장비와 컴퓨터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던 것을 일반 교회 선교팀과 음향 선교팀을 통해서 각 교회 별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별 문제 없이 사용했는데, 갑자기 팬데믹 상황으로 온라인과 라이브 예배를 방송하고 송출하는데 장비와 컴퓨터가 낙후되어 라이브 예배중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매주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에 있는 믹서기, 컴퓨터와 카메라를 다 동원했지만 그래도 매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한국과 같이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 자주 끊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마다 작은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 가족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싘타크르즈 열방교회 오엔과 유진이 모든 장비와 컴퓨터를 담당하고 있는데 새로운 컴퓨터는 150만원대, 음향장비는 300백만원대를 구입하는 것을 목표로 겨자씨 돈으로 23만원 정도를 모았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장비를 갖추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없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다시 사역지로

12월에 필리핀 정부로부터 저희가 필리핀에 입국할수 있다는 허가를 드디어 받아서 1월 15일에 있는 세미나를 마치면 필리핀으로 입국하려 했는데, 12월 29일부터 영국 바이러스가 한국에 유입됨으로 인해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입국하는 것을 1월 15일까지 다시 중단 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만 입국후 격리를 했는데, 앞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14일을 다시 호텔에서 격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격리비와 입국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방법** (카카오톡 아이디 : anbciamc)

\*외환은행 1810401155711 받는 사람 : 김종태 선교사

\*국민은행 232701-04-016557 김종태

\*농협 068-12-153916 김종태

\*메일: [davidlife@hanmail.net](mailto:davidlife@hanmail.net) 현지전화 : 09054225797